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수순…군사중립국 포기

1948년 이후 중립국 고수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여론 선회
터키 어깃장 변수…푸틴 "실수" 경고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핀란드 정부는 15일(현지시간) 가입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과 정부 외교정책위원회는 의회와 상의를 거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는 데 공동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역사적인 날이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핀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는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핀란드 의회는 16일 이번 결정과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며, 200명 의원 대다수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마린 총리는 "정부와 대통령이 훌륭히 협력해 오늘 중요한 결정에 이르렀다. 우리는 의회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다는 이번 결정을 며칠 내에 승인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치면 핀란드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공식 가입 신청을 내게 되며, 신청 시점은 내주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니니스퇴 대통령과 마린 총리가 12일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스웨덴의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민당은 이날 특별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사민당은 다만, 핵무기의 배치나 영토내 나토 장기 주둔은 거부하기로 했다.

스웨덴 의회도 16일 나토 가입과 관련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현재 스웨덴 대부분의 정당은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나토의 가입이 지역 긴장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가입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소폭 앞섰다.

스웨덴은 빠르면 16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1948년 이후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 왔다.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면서도 인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역시 1949년 나토 출범 당시부터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선언했다. 이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외교와 핵군축에 초점을 맞추고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국제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 내 여론은 나토 가입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앞서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이번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고, 러시아에도 "당신들이 이것을 초래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답한 바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핀란드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맞대는 경계가 현재의 배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교부는 12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군사·기술적 조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국의 나토 가입 계획을 설명했고,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핀란드의) 전통적 군사적 중립주의 정책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5일(현지시간) 윈저궁에서 즉위 70주년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마장마술쇼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 손사레 치던 멜라니아
폭스 인터뷰 재입성 의지 시사

멜라니아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영부인이 그간 백악관 재입성에 뜻이 없는 듯한 입장을 보이다가 15일(현지시간) 복귀 의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멜라니아는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백악관 복귀 전망을 묻는 말에 "절대 안되는 일은 없는 법"(Never say never)이라고 답했다.

이날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나는 워싱턴DC를 좋아한다"면서 "다른 도시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곳이지만 나는 그곳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백악관에서 사는 것은 즐거웠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것은 내게 최고의 영광이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을 살피는 일도 즐겁게 했다. 그곳은 잠시 내 집이었다"면서 "그곳이 국민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곳에 사는 것은 특권이었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퇴임 후 조금씩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2024년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멜라니아가 백악관을 나온 이후 언론과 공식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부인 시절에도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고 불렸던 멜라니아는 워싱턴DC를 떠나 플로리다로 돌아간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외부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간 백악관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멜라니아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비칠만한 발언도 내놨다. /연합뉴스

크렘린궁 부근 달리는 모스크바 하프 마라톤 출전자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출전자들이 크렘린궁 부근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 중국의 무력 침공 상정한 지휘소 훈련 들어가

'워게임 시뮬레이션' 닷새간 실시

대만을 겨냥한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상정한 지휘소 훈련(CPX)에 들어갔다고 대만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은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漢光) 38호 훈련의 일환인 지휘소 훈련이 이날 북부 타이베이의 다즈(大直) 지역에 있는 국방부의 지휘소에서 각 작전구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CPX 훈련에서는 최근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과 원양 항해 훈련 등 군사 활동으로 인한 각종 가능성을 상정한 대만군의 대처 조치 등을 16일부터 닷새간 실시한다고 연합보가 전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도 분석해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대만 국방부가 이번에 실시하는 훈련의 명칭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워게임'에서 '전민방위작전 도상 워게임 시뮬레이션'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합참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의 '합동 전장 모의모델'(JTLS)과 결합해 만든 개선형 도상 워게임으로 시가전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한 의제 토론 등을 통해 결론 및 합의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JTLS 시스템은 미 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한국, 대만, 일본 및 미군이 주둔한 지역들과 동시에 연결,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워게임 모델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도 수출 금지에
국제 밀값 5% 이상 급등
세계 곡물시장 충격

인도의 갑작스러운 밀 수출 금지 발표에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이 이날 한때 부셸당 12.475달러로 5.9% 뛰어올라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밀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5.6% 상승한 부셸당 12.43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그간 국제 곡물 시장에서 인도는 주요 수출국이 아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지 발표가 나와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에서 나타난 식량 보호주의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농산물시장 정보업체 토마스 엘더 마켓츠의 곡물 애널리스트인 앤드루 화이틀로는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발표가 예년에 나왔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13일 밤부터 밀 수출을 즉각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대외무역총국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기타 취약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인 이집트는 인도로부터 밀 50만t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안내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금고 회원 17,000여명 잠재고객 창출 및 홍보가능
4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금은방, 편의점 입점 협의 中
5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6 사옥 맞은편 아파트 신축 공사中 유동고객 추가창출
7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8 입점업체 행사 (이벤트)회원홍보 적극지원

임대 안내

층	호 실	임대면적(㎡)	추천업종	호별 위치도
1	101호	89.18㎡ (27평)	카페 약국 편의점	1층: 101, 102, 103, 금 고
	102호	132.19㎡ (40평)		
	103호	167.5㎡ (51평)		
2	201호	87.82㎡ (27평)	사무실 병의원	2층: 201, 202, 203, 204, 금 고
	202호	91.02㎡ (28평)		
	203호	140.98㎡ (43평)		
	204호	271.42㎡ (82평)		
3	301호	치과 입점	병의원	3층: 301 치과, 302, 303
	302호	238.34㎡ (72평)		
	303호	275.01㎡ (83평)		
4	401호	340.62㎡ (103평)	병의원	4층: 401, 402, 403
	402호	238.34㎡ (72평)		
	403호	275.01㎡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大 모집)		

2021년도 배당률 4%
(출자배당 3.5% + 이용고배당 0.5%)
최근 3년 평균 3.5% 배당
출자금에 저축하세요!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임대문의: 영업지원팀 062-223-8007